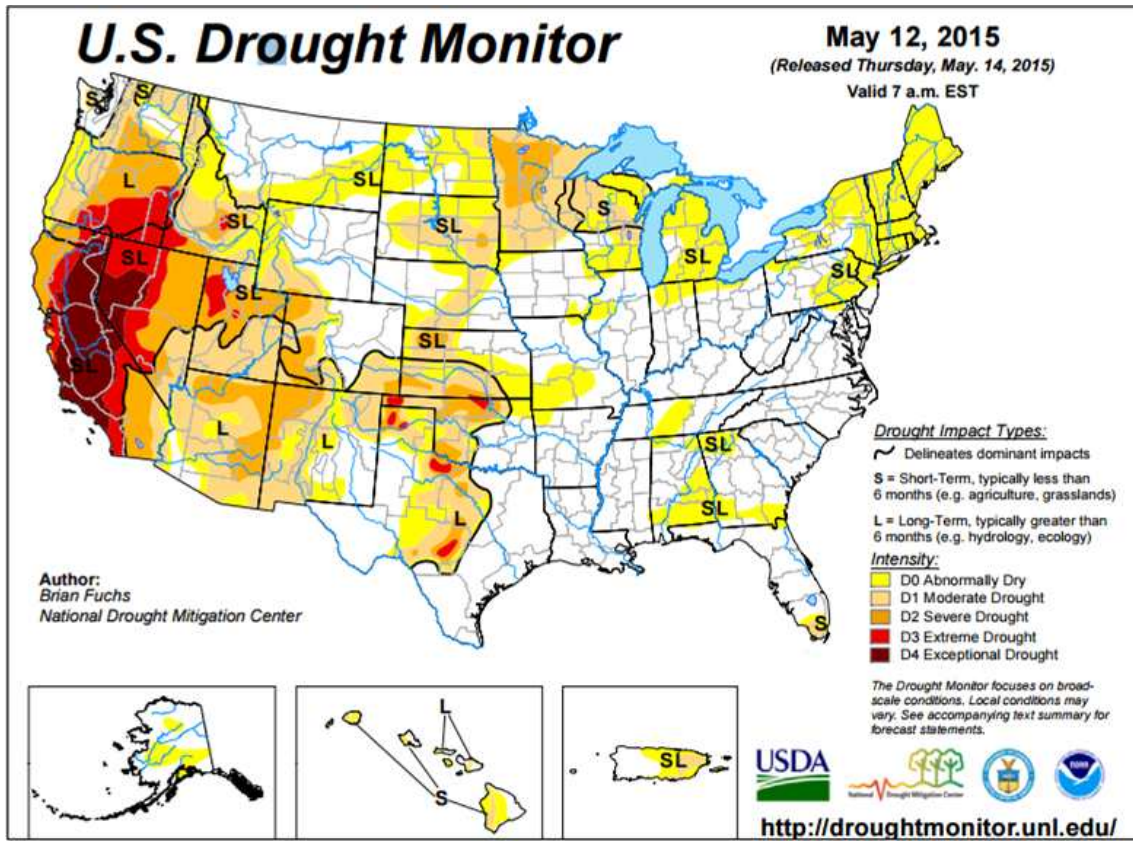


5월 19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20)

□ 미국 기후 현황(5/10~5/16)



미국 전역에 걸친 폭풍우로 중부 일대의 가뭄은 상당부분 해소되기도 했지만, 남동부 평원과 걸프만 서부에서 중남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홍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지난 한 주간 내린 비의 양은 2~4인치 수준이었으며, 중서부와 텍사스 일대에는 이보다 많은 비가 내렸다. 남부 텍사스와 중남부, 남동부 평원지역은 4인치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한 반면, 동부지역에서는 간간히 소나기가 내리는 정도에 그쳤고, 지난 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던 북동부지역에서도 목초지와 여름 농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비가 내리지 않았다. 중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춥고 습한 기후가 지속되었는데, 이 때문에 옥수수과 콩의 파종 시기가 앞당겨지기도 하였다. 캘리포니아와 중서부, 북부 지역 일대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유지되어 겨울밀 재배지의 피해는 없었던 반면, 남동부 지역에서는 90°F를 웃도는 고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려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서부지역 전반에 걸친 가뭄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다.

## □ 농업 현황 요약(5/11~5/17)

미국 동부의 1/3에 해당하는 동부 옥수수 재배지역과 남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을 웃도는 기온이 유지되었는데, 특히 뉴저지, 뉴욕, 펜실베이니아, 뉴잉글랜드 남부의 기온은 평년보다 6°F 정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와 반대로, 남서부와 북부 대평원의 경우에는 지난 한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6°F 정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1.5인치의 강우량을 기록해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알래스카, 북부 다코다, 텍사스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다. 특히, 텍사스의 블랙랜드(Blacklands), 북동부와 남부 일부지역에서는 최고 10인치까지 비가 내리기도 했으며, 텍사스 곳곳에서 강한 바람과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 ■ 옥수수

5월 17일 기준 한 해 생산량의 85%에 해당하는 옥수수를 파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작년에 비해서는 14%p, 지난 5년의 평균 파종량과 비교했을 때는 10%p 앞선 상황이다. 동부 옥수수 지대에서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파종 시기가 앞당겨졌는데, 특히 인디애나, 켄터키,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파종 시기가 20%p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이는 작년보다 24%p, 지난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16%p 앞선 것이다. 이 같은 이른 파종으로 발아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네소타의 경우 파종한 옥수수가 발아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2%에 달했고 이는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 45%p 앞선 수치이다.

### ■ 가을밀

5월 17일 기준 겨울밀 출수율은 68%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작년 동기보다 13%p, 직전 5년 평균보다는 12%p 앞선 것이다. 알칸사스, 캘리포니아, 오클라호마, 텍사스에서는 출수가 거의 끝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을밀 재배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45%가 매우 좋은 생육상황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 16%p 높은 수준이다. 대평원지역 전역에 적정량의 강우가 내려 가을밀 생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면화

5월 17일 기준 한 해 생산량의 35%에 해당하는 면화가 파종되었으며, 이는 작년보다는 9%p 그리고 직전 5년 평균보다는 11%p 뒤쳐진 상황이다. 남동부지방의 건조한 대기로 인해 파종 시기가 앞당겨졌으며, 특히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39%, 미시시피와 테네시, 버지니아에서는 25%p 이상 앞섰다.

### ■ 쌀

5월 17일까지 한 해 생산량의 89%에 해당하는 쌀이 파종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작년보다는 4%p, 직전 5년 평균보다는 7%p 앞선 수준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파종률은 90%수준으로, 이는 직전 5년 평균보다는 28%p 앞선 수준이다. 이번 주말까지 전국 출수율은 7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작년보다는 3%p, 직전 5년 평균보다는 4%p 앞선 것이다. 알칸사스, 캘리포니아, 미주리에서는 20% 이상이 출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66%가 생육상황이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했고, 이는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다.



## □ 세계 기후 현황(4/12~4/18)

■ 유럽: 건조하고 따듯한 날씨가 지속되었으나, 이탈리아 북부와 발칸반도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폭풍우나 강한 소나기가 지나기도 했다. 건조한 날씨 덕분에 여름 작물의 파종시기가 앞당겨졌으며, 유럽 중부와 북부지방에서는 적절한 강수에 뒤이은 화창한 날씨로 채소류와 겨울 작물 생육에 좋은 여건이 조성되었다. 폴란드와 발칸반도 북부 지역은 저기압의 가장자리에 속하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내려(2-22mm), 봄철 곡물과 옥수수, 해바라기 생육에 적절한 수분 공급이 이루어졌다. 루마니아나 불가리아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내려(10-60mm) 옥수수와 해바라기의 파종 시기가 늦춰지기도 했지만, 겨울밀과 유채 생육에 필요한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영국 서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적절한 강우로(10-30mm) 봄가뭄이 해소되었다. 스페인에서는 일부지역에서 매우 높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지만(35-41°C), 전반적으로는 고온이 지속되어 작물의 생장이 촉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구소련(서부):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강우 덕분에 중부지역의 가뭄이 완화되었고 남부지방의 경우 토양에 적절한 수분이 공급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기승을 부리던 봄 가뭄도 10-40mm의 강우로 해소되었으며, 겨울밀과 최근에 파종한 옥수수 성장에도 도움이 되었다. 러시아 서부지역에서도 소나기와 폭풍우(10-25mm)로 겨울 작물과 봄철 농작물의 성장에 필요한 수분이 토양에 충분히 공급되었다. 반면, 흑해 연안에서는 건조한 대기 덕분에 농지 관리와 겨울작물 수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남부의 밀 재배지역에서는 평년을 웃도는 강우 덕분에 작물 생육에 적절한 환경에 유지되었다. 우크라이나 남부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약간 높았고(1-3°C), 벨라루스의 경우 평년보다 2°C 정도 낮은 기온을 유지했다.

■ 동아시아: 중국 북부 평원의 건조한 지역에서는 겨울밀이 수확을 앞두고 있으며, 이 지역의 강우량은 15mm 수준을 기록했다. 수확기까지는 적절한 수분, 온화한 날씨 덕분에 생육상황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Yangtze 계곡에서는 전 지역에 걸쳐 소나기가 내렸으며(25-75mm), 강우로 인한 수분 공급의 증가로 쌀의 생육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겨울 작물의 수확 작업은 지연되었다. 중국 남부지역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내렸으며, 광둥과 광시 지방에서는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다. 중국 북동부 지역에 내린 소나기로(25-50mm) 토양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었으며, 기온도 평년보다 1~2°C 낮은 수준을 유지해서 옥수수와 대두 발아를 촉진시켰다. 일본 남부 지방은 초대형태풍 Noul로 인해 최고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한국에서는 20~50mm 사이의 강우로 모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 호주: 남부 퀸즐랜드와 북부의 뉴 사우스 웨일즈 지역에서는 지난 주에 이은 따듯하고 건조한 날씨로 면화와 수수 수확과 겨울밀 파종 등 야외 농업 작업에 유리한 조건이 유지되었다. 따듯한 날씨는 겨울밀의 발아와 출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들 지역보다 남쪽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간간히 소나기가 내려(1-5mm) 주요 겨울 작물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빅토리아 남부지역과 뉴 사우스 웨일즈의 남동쪽 지역에서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지만(5-25mm), 작물 피해는 크지 않았다. 그 밖에도, 호주 서부의 밀재배지역에서는 적절한 양의 강우로(5-25mm) 표층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어 밀과 보리, 카놀라 등 봄철 농작물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밀 생산지역의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중부지역에서는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여름 작물과 지방 종자의 수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기온 또한 평년보다 3-5°C 높은 수준을 보여 작물의 성장을 촉진시켰다. 낮 최고기온은 25°C 내외로 한 주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Santa fe 북부에서 Formosa에 이르는 북동부의 면화 재배지역에는 강한 비가 내려(25-100mm) 수확 작업이 지연되었다. Salta 지방과 Santiago de estero를 비롯한 북서부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겨울밀 파종을 비롯한 농업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북부지역의 지난 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2°C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낮시간 동안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20°C 초중반의 기온을 기록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옥수수의 수확률은 41%, 콩의 수확률은 82%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5월 14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두 작물의 수확률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10%p 앞선 수준이다.

■ 브라질: 브라질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이어져 2기작 작물인 옥수수 생육에 적합한 환경이 유지되었다. Mato Grosso와 Parana 지역은 50mm가 넘는 강우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강우량이 10mm 미만을 기록했다. San Paulo와 Minas Gerais에서는 강우로 사탕수수과 커피의 수확이 지연되었다. Parana와 Rio Grande do Sul 지역에 내린 비는 겨울밀의 생육에 적합한 습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평소 따듯한 기온을 유지하는 북부의 Mato Grosso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를 웃돌기도 하였다. 북동부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해안지역에서는 소나기가(25mm 미만) 내려 더위가 주춤했다. Bahia를 비롯한 북동부 내륙지방에서는 건조한 날씨 덕분에 수확을 앞두고 있는 콩과 면화의 생육에 적합한 환경이 유지되었다.